

SPEAKER



우종우

성균관대학교 교수

-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

- 동대학원 문학박사

- 러시아국립인문대 초빙교수

- 성균관대 티칭어워드 수상

- <무엇이 인간인가> <예술 수업>

저자

통념의 시대! 잠든 감각을 깨우고 놀라움을 채워라!

1. 감각의 시대? 잠든 감각을 깨우는 법

- A. 감각의 시대? :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와 자극이 범람하고 있다. 하지만 사실 '다른 사람의 감각'을 '나의 감각'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이다.
- B. 가짜 감각의 시대! : 가짜 감각의 시대에서 개인은 '남에게 보이는' 방식을 중시한다. 이는 진짜 자신에 대한 판단을 마비 시키며 진정한 감각 체험을 막는다. 이러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집단 불행의 근원이 된다.
- C. 나의 감각을 깨워라 : 자기 감각 능력의 회복을 위해 개인은 끊임없이 현상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. 나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.

2. 통념의 시대? 마음으로 이해하는 법

- A. 통념의 시대? :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을 말한다. 그러나 통념 중 대부분은 편견인 경우가 많다.
- B. 가슴으로 이해하라! : 우리는 '이해'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'계산'인 경우가 많다. 머리로 이해하면 선입견에 빠지기 쉽고 두터워지면 편견의 벽이 된다. 편견은 새로운 환경의 감각 체험을 막는다.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이 이해하는 것에 괴리가 생기면 이 것이 바로 위선이 된다.
- C. 인식의 폭 확장 : 세상은 개인이 해석한 만큼 존재한다. 때문에 가슴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감각을 체험 할 수 있다. 이를 통해 머리와 가슴의 인식 차에서 오는 괴리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식의 폭을 확장 시킬 수 있다.
- D. 진정으로 실천해라! : 인식의 폭을 확장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의 감각을 새롭게 탄생 시켜야 한다. 이를 통해 나의 감각과 진정으로 조우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.

3. 창의성의 진정한 정의!

- A. 기존의 창의성 : 우리는 창의성을 통념의 틀 안에 가둔다. 가령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, 젊은이의 생각 등을 창의적인 것이라 판단하며 장려하지만 이 역시 통념이다.
- B. 일에 대한 애착 : 통념에서는 틀 밖에서 벗어난 개인의 번뜩이는 생각을 창의성이라 부른다. 하지만 실체는 다르다. 일에 대한 애착이 창의성의 발현 조건이다.
- C. 일에 대한 전문성 : 통념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바로 창의성이라 생각한다. 하지만 진정한 창의성은 기존의 일을 '조금 바꾼 것'이다. 새로운 생각은 자기 자신의 늪에 빠져 들게 만든다. 전문성이 근간에 섰을 때 창의성은 저절로 발현 된다.
- D. 일에 대한 겸손 : 자기애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사실 자기애는 진정한 인식을 자기 속에 폐쇄시킬 뿐이다.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때 진정한 창의성이 발현된다.



